

## 제4과 온 가족이 영적 전사가 되는 길

믿음의 명문가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온 가족이 영적 전사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계속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강력한 용사들이 될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일당백의 용사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의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모두가 하나 같이 영적 전사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지의 가족들도 이런 가정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가장인 빌레몬에서 시작된 ‘영성’이 부부로 그리고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가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1. ( )

오늘 본문에는 ‘빌레몬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빌레몬의 가족에 대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매 ‘압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병사 된 ‘아킵보’라고 기록합니다.

#### 1) ( ) 빌레몬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바울과 함께 갇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지체들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3-4)

---

---

## 2) ( ) 압비아

빌레몬의 아내인 압비아도 바울이 ‘자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자매’라고 표현할 때는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압비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로마서 16:1-2)

---

---

## 3) ( ) 아킵보

무엇보다 빌레몬의 아들 ‘아킵보’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병사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사되었다’는 표현은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3)

---

---

그만큼 빌레몬의 아들 ‘아킵보’는 바울과 디모데에게 믿음직스러운 차세대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성지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도 이런 믿음의 신실한 가문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 2. ( )

그 첫 번째 키는 ‘부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부부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 가정 윤리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한국의 정통적 가정관에서는 ‘부모관계’ 즉 ‘효’를 근간으로 하지만, 성경의 가정관은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24)

---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이 되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먹고, 아내가 보기 싫은데, 시댁이나 처가에 진심으로 효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부부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부부의 관계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아 안수할 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시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테전서 3:8-11)

---

11절에 ‘여자들도’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은 ‘their wives are to be’로 기록합니다. 즉 집사의 아내들도 집사의 조건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부부가 다 합당해야 집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부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 다 충성되어야 합니다.

### 3. ( )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것인가? 그 두 번째 키는 바로 ‘믿음의 가장’인 빌레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 1) ( )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서 1:4-5)

---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because I hear about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for all the saints.)

#### ① ( ) (faith in the Lord Jesus)

성도를 향한 사랑의 본질은 그의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믿음의 핵심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구별됩니다. ‘신념’이 ‘자기 확신’이라면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9-10)

그 믿음의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

---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5)

---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31)

---

---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7-9)

---

---

② ( \_\_\_\_\_ ) (love for all the saints.)

믿음의 사람 빌레몬의 삶에 나타난 열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사람’에게 맺히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닮아야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1서 4:16)

---

---

주님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

---

그래서 제자 됨의 모습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

---

이렇듯 빌레몬의 삶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내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2) ( )을 주는 삶

두 번째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그로 말미암는 ‘평안함’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서 1:7)

---

---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10:5)

---

---

우리가 전하는 평안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

---

## □ 묵상과 적용

오늘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할 것들을 적어 보세요!!

[illegible]